

경향신문

블룸버그 "G20, 2분기 성장률 -11%" 역대 최저치 전망

기사입력 2020-04-26 22:33

- 중국 등 3개국만 플러스 성장
- 한국 -0.2%, 하락폭 줄어들 듯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20개국(G20)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지난해 동기 대비)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감염병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실물경제 충격과 신용경색을 동시에 겪으면서 과거 대공황 수준의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글로벌 투자은행과 경제연구소 등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G20 국가의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1.0%에 그쳤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9년부터 G20 성장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G20의 종전 분기 최저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의 마이너스 2.4%였다.

G20 국가 중 플러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중국(1.5%)과 인도(2.0%), 인도네시아(5.0%) 등 3개국이다. 중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인 마이너스 6.8%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2분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1분기에 마이너스 1.4%를 기록했던 한국은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로 하락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확진자 수가 급증한 이탈리아(-12.1%)나 영국(-11.0%), 프랑스(-10.3%) 등은 2분기에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무려 26.0%와 28.1%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국제기구와 경제전망 기관들은 금융위기 당시보다 성장률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시에 위기에 직면한 만큼 국가 부도 사태가 늘어나며 무역·자본 통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각국의 대규모 봉쇄조치로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32&aid=0003005876>
